

JH아시아링크 '현지 속으로' 연수 필리핀 공립학교 교실서 영어 배운다

필리핀 앙헬레스에 캠퍼스를 둔 영어 교육기관 JH아시아링크가 현지 공립학교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체험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인정 학력 온라인 스쿨과 업무협약(MOA)을 맺어 정규 학력 과정으로 영역을 넓혔다.

취재 <내일신문>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사진·자료 JH아시아링크



123 JH아시아링크가 현지 공립학교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체험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4 캠퍼스는 앙헬레스 지온 빌리지(Zion Village)에 있는 단독 건물로 1층은 교실, 2층은 기숙사로 쓴다.



현지 공립학교 수업 참여 기회

JH아시아링크는 필리핀 앙헬레스에 캠퍼스를 둔 영어 교육기관으로, 어학 연수, 방학 영어 캠프, 기숙 관리형 유학 과정을 운영한다. 필리핀 교원 자격(LPT)을 보유한 교사진을 갖춘 데다 현지 공립학교 정기 교류와 지역 사회 행사 참여 등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 1:1 수업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높다는 평가다. 최근 영어 학습이나 조기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학부모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JH아시아링크의 필리핀 현지 어학 연수·체험 교육의 핵심은 필리핀 공립 중·고교인 달리스(Dalis)와의 정기 교류다. 현지 교육청과 협력해 정식으로 교류 관계를 맺었다. 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캠프마다 2~3회 이 학교를 찾는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빠짐없이 진행하며 학생 전원이 참여한다.

이 같은 교류가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방학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이 방학을 맞아 캠퍼스에 머무는 동안 달리스는 정상 학기를 운영한다. 학생들은 전학이 아니라 실제 수업 시간에 현지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영어와 체육 수업을 듣는다.

방문 전에는 영어 자기소개와 선물을 준비한다. 현장에서는 함께 점심을 먹고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첫 방문이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는 자리라면 두 번째부터는 아는 친구를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게 기관 측 설명이다.

교류는 학교 밖으로도 이어진다. 학생들은 현지 마을 생일파티에 초대받고 캠퍼스에서 바

자회를 열어 현지 길거리 음식을 나눈다. 지역 노래대회에서 주민들과 어울리기도 한다. 주말에는 현지 요리 체험, 교사가 동행하는 시티 투어, 비행 실습 등을 진행한다.

필리핀 정규 고교 인가도 추진

JH아시아링크는 정규 학력 과정도 운영한다. 기숙 관리형 미국 온라인 스쿨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오전에 미국에서 인정되는 초·중·고 온라인 정규 과정을 듣는다. 오후에는 1:1 영어 수업을 듣고 부족한 과목의 보충 지도를 받는다. 미국 조기 유학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게 기관 측 설명이다.

필리핀 교육부(DepEd)의 정규 고등학교 인가 절차도 밟고 있다. 인가가 나면 예체능 고교 과정을 통해 필리핀 정규 고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사진은 모두 필리핀 교원 자격 보유자다.

캠퍼스는 앙헬레스 지온 빌리지(Zion Village)에 있는 단독 건물로 1층은 교실, 2층은 기숙사로 쓴다. 가로 10m, 세로 20m 규격의 수영장과 농구장, 탁구장, 독서실 등을 갖췄고 배드민턴장, 러닝코스, 도서관 등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JH아시아링크 윤태식 대표는 “영어 번역과 단순한 지식 전달은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시대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이 직접 부딪치고 경험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있다. 언어 학습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단단한 기본기와 통찰력을 기르는 체험 플랫폼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